'동·동·동화 축제' 겨울 추억 선사

남원 예촌지구 일원서 21·22·25일 체험·공연·행사 다채

남원시는 오는 21일, 22일, 25일, 3일간 예촌지구 일원에서 '동·동·동화 축제'를 진행해 겨울철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남원의 따뜻한 전통 한옥 분위기와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을 결합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경험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소환시키는 독특한 공감과 소통의 겨울 축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컨셉 four동! 포동!은 겨울(冬), 아이(童), 함께(同), 움직임(動)이라는 4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판타지하고 동화 같은 겨울을 제시한다.

또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촌 광장을 중심으로 관서당 마당·조갑녀 살풀이 명무관 마당·황희초당마당 등 4개의 구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동동동화축제는 '겨울동(冬)'에서는 대형 돔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아이동(童)'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톳불 체험,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진저브레드 쿠키 꾸미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같을동(同)'에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마술, 벌룬, 아카펠라, 인형극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움직일동(動)'에서는 겨울철 전통놀이와 액티비티 체험으로 추위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이번 축제는 남원의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다양한 프로그램과 따뜻한 분위기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동·동화 축제' 포스터

박은교 작가와 함께한 '숏 인 전주' 성료

전주국제영화제, 공모 출품자 대상 로케이션 투어·시나리오 특강 진행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지난 10일 '숏 인 전주(Shoot in Jeonju)' 공모 출품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나리오 특강과 전주 원도심 로케이션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숏 인 전주'는 전주시와 함께하는 관광거점도시 전주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화 가능성이 높고 작품성·독창성이 뛰어난 새로운 국내 영화 프로젝트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 발굴·육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강을 진행한 박은교 작가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를 비롯해 〈미쓰 홍당무〉, 〈네버엔딩 스토리〉, 〈보통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의 주요 작품들을 집필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로 글로벌 OTT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나리오 작업의 실제'를 주제로 한 3시간의 특강에서 박은교 작가는 영화 〈마더〉와 OTT 시리즈 〈고요의 바다〉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영화와 OTT 플랫폼의 차이점, 각 매체에 맞는 시나리오 작법 등 실무적인 조언이 이어졌다.

특강을 마친 박은교 작가는 "이번 특강이 창작자들의 작품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특강에 앞서 진행된 전주 원도심 로케이션 투어는 영화적 배경과 소재로서 전주의 잠재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전주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불짜장을 체험하고, 풍남문, 옛 공보관 건물과 근대 문화유산 박다옥, 전라감영 등 시간의 흔적이 깃든 원도심 명소들을 둘러봤다. 또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경기전 투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주만의 독특한 영화적 배경을 직접 거닐었다.

/장은성 기자

제25회 전북시인상·제1회 신인상 수상식 성황리 개최

전북시인협회, 대상 윤현순 본상 김현조·신인상 강석희

전북시인협회는 지난 1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25회 전북시인상 및 제1회 신인상 수상식을 성대하게 마쳤다.

전북시인협회(회장 이형구)는 지난 1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25회 전북시인상 및 제1회 신인상 수상식을 성대하게 마쳤다.

1부 식전행사로 전북원로문인을 선정해 영상으로 기록한 자료와 시인들의 활동을 영상편집하여 한해를 돌아보았다.

2부 행사는 전북시인협회가 2024년도에 모든 회원들이 활동하였던 한 해를 마감하는 행사로서 '우리땅 대마도 역사탐방'을 시작으로 문학기행인 '한국인의 서사 전라도 관찰사 순행길을 따라가다.'의 주제로 전남 나주에서 현장체험 및 '詩 옛사람과 놀다.'의 주제로 남원시민과 순창군민을 위한 사낭송 공연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와 노는 아이들 '詩글詩글' 행사 등 일년동안 다채롭게 이루어진 활동에 도민과 시민 등 연인원 2천여명이 참여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결정체로서 제27집 '시의 땅' 종합문예지 발간을 끝으로 오늘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정을 회장 이형구의 설명이 있었다.

3부인 본행사에서는 회원들의 그간의 활동중에 습작하여 제출한 시에서 엄선하여 제25호 전북시인상의 영예의 대상으로 시인 윤현순으로, 본상으로 현재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조 시인을, 또한 2024년도 제1회로 전북시인협회에서 젊은 시인들의 활기찬 문단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주는 신인상으로 시인 강석희 시인에게 수여했다. 특히 전북시인협회의 시인들의 시를 국가 행사인 광복절날 특집시낭송으로 위상을 높여주신 광복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 이강안 지부장에게는 전북시인들의 감사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 하였는바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도 지급했다.

수상식에 앞서 심사 위원장으로 참여해주신 대한민국공무원문인협회 이세규 회장의 심사평에서 전북의 시인들이 제출한 시들 중 우열을 가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제출되어 본인을 비롯한 심사위원 3명이 심사경력 중 제일 힘들었다고 심사평을 했으며 대상을 수상한 윤현순 시인은 수상소감으로 한 강 시인의 노벨문학상을 받는 해에 시인으로서 최고의 상을 받아 너무 기쁘다고 하였고 본상을 수상한 김현조 시인은 앞으로도 전북문단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인상을 받은 강석희 시인은 전북시인협회의 제1회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이 깊어 젊은 시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회원 200여명이 함께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의장 및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시의회의장의 참석과 축사를 비롯하여 명예 시인인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전북예총 회장을 역임한 소재호 회장의 격려사로 성황리에 본 행사를 마쳤다.

/이만호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 명품수공예 브랜드 선보인다

서울서 열리는 '공예트렌드페어' 참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2~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공예트렌드페어'에 참가해 전주를 대표하는 '천년전주 명품 온(Onn)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12일 전당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과거 우리나라 전통문화 속에서 차와 다과를 즐길 때 사용되던 '다과상'을 주제로 △도자 △금속 △소목 △목선반 △옻칠 등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16개 공예품을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전통과 모던함을 융합한 △디저트 3합 △먹감사각접시 △소반 △옻칠사각접시 △옻칠원형접시 △트레이 등 온(Onn) 브랜드 상품이다.

특히, 전시를 위해 무형유산 고(故) 조석진 장인의 제자이자 전통 짜맞춤 및 목가구 전문가인 권원덕 작가(Studio686 대표)와 도자 분야에 김경영·정도윤 작가(플레인세라믹 대표), 옻칠 분야에 김문수 작가(가야공방 대표), 금속공예 분야에 김완규 작가(아티펙스 대표), 목기 분야에 이건무 작가(남원목기디자인센터 대표)가 온(Onn) 브랜드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김도영 원장은 "다과상이라는 친숙한 주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만큼 젊은 세대부터 공예 애호가까지 모두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천년전주 온(Onn)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고 전주의 전통공예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21일 퓨전국악공연 'Holiday season'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퓨전국악공연 'Holiday seas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2011년 창단된 국악밴드 '소리애'가 함께한다. '소리애'는 전주대사습놀이 창작국악경연대회 관객상, 곡성 통일전국종합예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실력파 국악밴드다. 특히 전통국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요소와 감성을 가미해 친숙한 퓨전국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예약 없이 관람 가능하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을 위해 국악을 토대로 다양한 장르를 합한 퓨전국악 공연 무대를 준비했다"며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